

주택설계 작품 현상 모집 심사위원 간담회

1970년 9월 17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17시부터 19시까지 회장 사회하에 개최

심사위원 명단

참석위원

- 엄덕문 (한국 건축가 협회 회장)
- 김희춘 (서울공대 건축과 교수 건축학회부회장)
- 정인국 (홍익대학 건축과 교수)
- 김중업 (김중업 건축 연구소 소장)
- 김수근 (인간 환경 계획 연구소 대표)

불참위원

- 홍봉희 (한양공대 교수 건축학회 회장)
- 이해성 (한양공대 교수)



김희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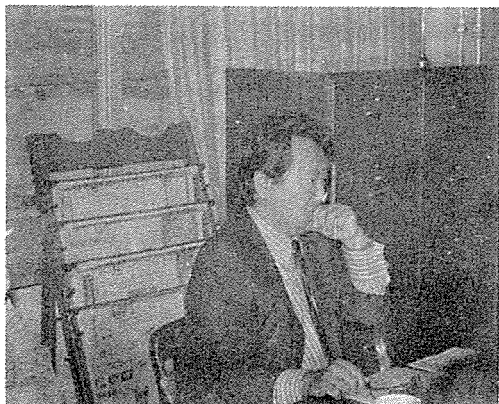
정인국



김중업



엄덕문



김수근

강명구회장 만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의 사업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지껏 현상설계가 제대로 되어 본적이 없었던 것은 대부분의 경우 주관하는 측이 현상설계의 과정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건축사 협회에서 하는 일이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명단을 발표할 겸 여러분을 미리 모신것입니다. (원칙은 응모요강의 발표도 심사위원회와 추진위원회 합동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시일도 촉박하고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므로) 응모 요강의 해석과 심사기준에 대한 원칙 등을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보다 완전한 이상적 현상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와있는 요강을 기준으로 해서 응모규정을 부연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발표된 기준을 보장하자는 것이 오늘 모임의 목적입니다. 응모자들로 하여금 보다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고 또 응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과 발표된 규정의 애매한 점이 있다면 심사위원들의 해석을 풀이해 주시도록 기탄없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업 지금 나와 있는 응모 규정만 갖고 볼 때는 여지껏 있었던 무의미했던 수많은 전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용과 조건이 모호한 규정을 갖고 좋은 작품을 바란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확대해석도 필요하겠지만 삶의 장소로서의 주거와 이것이 모여서 이루는 마을을 동시에 다루도록 하는 방향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덕문 지금 나와 있는 규정의 의미를 확대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지금 되있는 막연한 규정을 더 상세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막연히 5인가족이라는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 가족의 구조라든가 가족의 생활양식이라든가 혹은 그 집이 들어서게 되는 지역의 성격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적기준 자체도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기준이 나와있으나 그것은 외국의 최소치므로 기준하기는 곤란한 것이고 또 앞으로 크게 대두될 프리화브의 문제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등이 있었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업 우리는 지금 완전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윤곽만 제시되면 그 안에서 자기자신이 몇가지 가정을 전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현상모집의 취지는 도시주택과 농어촌 주택의 일반해를 요구한 것이므로 삶의 장소로서의 주거 그리고 이것이 모여 이루는 마을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면 일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것의 표현은 결국 각자의 능력에 따른 것이므로 구태여 우리가 암시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춘 우리는 이웃과 마을의 테두리 안에서 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택이라는 문제가 주택자체만의 문제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형태의 변화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그러한 문제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건축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의 도시, 오늘의 농어촌에 있어서의 주거의 문제를 어떠한 각도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집과 이웃과 마을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더 문제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주택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움직임의 원리가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인국 김교수님 의견에 저도 찬성입니다. 이번 현상모집의 주안은 단순한 주택의 설계보다는 도시생활과 농어촌 생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표현은 설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겠지만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그 설계를 통해서 어떤 생활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란 전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주택은 그 자체로서 보다는 한 마을의 부분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농어촌 주택은 한 커뮤니티를 배경으로 한 계획의

일부분인 농어촌 주택이 아니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의 경우는 도시생활의 질서 그 자체에 표현할 수도 있지만 농촌주택의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근 여러분 말씀대로 응모자의 창의를 막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확대해석과 방향의 제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심사의 과정과 기준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각 심사위원들이 개성을 지닐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자칫 무성격해지고 평범해질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특히 현상설계를 무의미하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심사위원 모두가 한 작품씩은 입선시킬 수 있게 창작을 심사하는 심사다운 방식을 택할 것을 미리 밝힙시다.

강명구 김위원 말씀은 결국 낙선이 될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안되면 낙선시킬 수 없다는 말씀인데 좋은 방식의 하나로 저도 생각됩니다.

엄덕문 채점방식 같은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주관에 의한다는 것이 개인의 취향에 흐르게 되면 선부른 아류를 조장할 지도 모르고 출품자가 심사위원 구성에만 아부하는 경향도 있지않을가도 우려되는군요.

김중업 저는 건축은 전체로 보는 것인데 어떻게 점수를 매기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뚜렷한 분계가 있는 것이므로 좋은 것을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디어나 비준이 문제되었지만 소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비준은 쓸모없는 것이므로 표현에 성공한 아이디어나 비준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보면 알지 점수로 매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심사방식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이 기준이 되니까 수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하니 응모된 작품들을 놓고 여러분들끼리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그 심사방식과 기준을 심사후 우리 회지에 공개함으로써 응모자들에게 정상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자신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주택, 농어촌 주택에 관해서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한 심사위원님들의 사고방향을 종합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국 도시주택에 대해서 스미스톤의 골든레인 계획같은 것이 좋은 암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의 연장으로서의 마당, 그리고 사람들이 광범하게 이어져 있는 도시의 리빙같은 가로 또는 광장, 인간생활의 연대성의 하이어나키를 합리적인 지역구분의 연속체속에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도시주거의 새로운 형태를 응모자들이 추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민 주택의 경우 그 울타리 자체가 한 주거의 영역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이 어떤 그룹으로 디자인된 방법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춘 정선생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시주택에서 특히 생활환경이었던 종래의 길들은 지금 증가하는 모빌리티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에서 저는 인간과 그 환경을 다시 일체화 하려는 건축가적 의지가 분명히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 광장, 녹지 등 종래의 방법만 가지고 되기에는 이미 생활의 상황이 달라져 있으므로 변경될 상황속에서의 도시생활의 형태를 분명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주택은 가족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시생활의 새로운 형태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중업 문제는 삶입니다. 삶 그것은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우선 생각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명제가 문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복합체의 어떤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도시와 농어촌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덕문 나는 실제적인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거단위의 스케일이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커뮤니티 전체의 계획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커뮤니티로 구성하는 요소중에 점차적인 확대에 의해서 커뮤니티가 되어가는 기본단위를 요구할 것이냐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근 완성된 것으로서의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태를 레이 아우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와같은 계획은 가능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의 조건을 확대하고 가정하여 현실의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어떤 형식을 추구함으로써 인간환경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를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상형의 개념에 의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시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 양식과 같이 새로운 종류의 정서와 미학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직화된 공간을 만들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은 각자의 자유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명제는 거기에 길이 이어진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대한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생활의 사이클 속에서 변화를 반영하게 되는 이웃과 마을과 커뮤니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문제는 지금까지 주어진 규정을 전제로 할 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으나 몬트리올의 아비따시옹67 같은 어떤 비존의 제시에 비중을 현실에 근거로 둔 것에 웨이트를 두느냐 하는 것이겠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제시, 앞을 내다본 센스를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시점의 해결을 요구할 것이냐가 문제되었습니다. 내 사견으로는 전자에 웨이트를 두겠습니다만

김중업 아비따시옹67은 비싼 실험입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실에서 비약하면 모든 것이 모호해집니다. 지금 얘기는 소위 주거의 프로토타입을 말하는 것인데 건축에서의 프로토타입은 결국 특수해를 통해서 제시되는 것이지 개념만 가지고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희춘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현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주택, 농어촌 주택이라는 복합명제를 갖고 현상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해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엄덕문 그런 것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어요. 선입견을 줄 우려도 있고.

김중업 모든것은 창의성의 기준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표현의 의지와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준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피상적인 규정은 필요없습니다.

정인국 그러나 그 창의성이라는 것이 모호합니다. 창의성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기준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 문제 초점입니다.

김희춘 문제를 좁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선생 말대로 현실을 전제로 하되 작품안 자체는 그룹으로서 집단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상적이 됨으로 좋겠습니다. 그 경우에 한 커뮤니티의 스케일에서 생각되는 주거의 문제 그리고 농어촌이나 도시의 생활양식에 대한 전제를 분명히 하고 그 전제를 배경으로 안을 만든것을 기준으로 하면 더욱 이상적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김중업 현상금의 액수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현상금을 많이 올리므로서 보다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상의 폭을 좁히고라도 상금을 올리는 방안은 없을까요.

일 등 찬의 표명있음.

강명구 심사세칙은 심사전에 다시 회의를 가지고 만들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협회 회원중에도 젊은 작가들이 이 현상에 참가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심사위원님 말씀대로 상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올리는 방법을 노력 강구해보도록 하고 전에 없이 심사위원님들의 심사각도와 방향을 미리 응모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서 출품의욕과 출품방향이 굳건히 하여진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일 등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최소 30만원 선까지는 회장이 노력해 보시기바라며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도록 바랍니다.

강명구 오늘 긴급히 심사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건축사 회지에 빨리 실릴것과 각 회원, 또는 각 대학 건축과에 오늘의 회의 결과를 선전게시하여 보다 많은 작품응모를 위함과 건축사 협회사업의 P.R. 과 좋은 안이 국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키 위하여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추진위원과 더불어 만반의 뒤치다꺼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